

1910~1920년의 인문학 양상과 발전(4)

제국주의, 현상학 · 행동주의 담론 촉발

이 시기 자본과 무력을 앞세운 강대국들의 야만적인 세계 분할은 지식인들 사이에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상학, 행동주의(behaviorism)의 철학적 담론을 불러일으켰다.

제국주의의 분석

“먹구름이 천둥을 가져오듯이 제국주의가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Vladimir Ilitch Oulianov), 즉 레닌(Lenin)이 1916년 펴낸 소책자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에서 언급한 구절이다. 바로 2년 전에 발발한 세계1차 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들었다. 이 전쟁은 강대국들이 서로 물고 뜯는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게 맑시스트들의 분석이었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가 갖는 5가지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점의 자유 경쟁으로의 대체, 생산의 집중,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융합, 자본의 수출과 국제 카르텔의 형성,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의 세계 분할의 완성이 그것이다.

레닌은 이 책자에서 자신보다 앞선 다른 학자들의 분석들을 다시 취하고, 종합하고, 강화하였다. 자본의 집중과 자유 경쟁 자본의 종말은 독일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의 《현대 자본주의》(1903)에서, 은행과 산업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구성은 루돌프 힐퍼딩(Rudolf Hiferding, 1877-1941)이 저서 『금융자본주의』(1910)에서 언급한 대목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단히도 자신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의 모색과 시장 확대를 필요로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애트킨슨 홉슨(John Atkinson Hobson, 1858-1940)은 1902년 저서 《제국주의》에서 과소소비, 과잉 저축으로 인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탐욕을 비판하였다. 특히 독일의 혁명가인 로자 룩셈부르크(Rosa Ruxembourg)는 1913년 《자본의 축적》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다른 대륙의 정복자가 되어 불가피하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제국주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사실 20세기 초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그들이 맑시스트 이건, 아니건 간에)을 대립시켰다. 심지어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



글_ 성일권 정치학 박사

● 이 글을 쓴 성일권은

파리3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파리8대학에서 정치학 예비박사(DEA)를 마친 뒤 유럽자본주의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번역서로 《그들 안의 오리엔탈리즘》(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진보와 그 적들》(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등이 있다.

(Bertrand Russel)도 저서 《19세기의 사상의 역사》에서 제국주의의 성격을 비판하였다. 1914~1918년 세계1차 전쟁의 발발은 강대국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엿보여준다.

현상학의 대두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욕망과 함께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면서 한 편에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는 철학적 움직임이 일어났다. 에드문드 후설(1859-1938)은 눈앞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했다. 짧은 시절 수학자의 길을 걸은 수와 도형, 기호학 등 수학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를 자신의 현상학에 응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올바른 현상학을 위해서는 우선 설명이 없어야 한다. 어떤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자신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모든 사실에 대해 두 가지 제약을 갖는다. 하나는 판단금지(epoche)다. 사실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괄호치기(einklammerung)이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괄호를 쳐두리는 뜻이다. 하지만 후설 스스로도 실제 사실 그자체로 다가 가는 것, 즉 어떠한 선입관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생각 속에는 미리 본 선견(先見 - vorsicht),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선판단' (vor urteil), 스스로 앞서 이해하는 '선이해' (vor - verstehen)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설은 "사실 그 자체에로...(zur sache selbst)" 이라며, 최대한 선입관을 배제하고 현상을 바라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현상학이라는 용어는 이미 앞서 많은 철학자들이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해왔다. 1764년 《신기관》(Neues Organon)에서 현상학이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독일의 철학자 J.H. 람베르트는 본체(本體)의 본질을 연구하는 본체학과 구별하여 본체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현상학이라고 하였다. 그 후 칸트는 물자체(物自體: 본체)에 관한 학문과 구별되는 경험적 현상의 학문을 주장하였고, 헤겔은 감각적 확실성에서 출발하여 절대지(絕對知)에 이르기까지의 의식의 발전과정을 일컫는 '정신현상학'을 제시하였다. 후설에 의해 재 점화된 현상학은 그 후 M.가이거, A. 펜더, A. 라이나흐, M. 셸러, M. 하이

데거, O. 베커 등 이른바 현상학과라고 불리는 학자들의 철학운동으로 발전한다. 후설의 현상학은 인간존재를 '세계 내 존재'로 파악하는 M. 하이데거나 J.P. 사르트르의 실존철학에 계승되었다.

행동주의의 탄생

전쟁과 폐허 속에 인간의 본질적 심리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은 인간의 행동적 요인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behaviorism)을 탄생시켰다. 러시아의 이반페트로비치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 1849-1936)는 실험용의 개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침을 분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은 대뇌의 작용에 의한 것임을 통찰하였다. 그는 굶주린 개가 전에 먹이광경과 연관시켰던 종소리에 반응하여 침을 분비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는 조건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행동을 신경계와 관련시킨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와 비슷한 개념적 접근을 전개시켜나갔다. 1904년 소화액 분비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학은 19세기말에 발달한 동물심리학과 W. 제임스의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윌슨(John B. Watson, 1878-1958)에 의해 행동주의로 발전하였다. 윌슨에 따르면 행동은 환경 내의 자극에 대한 조건부여의 결과이고, 생득적(生得的)이라기보다는 습관적인 면이 중요하다. 즉, 감각은 자극에 대한 차별반응, 감정은 내장기관의 활동, 사고는 발성(發聲)을 수반하지 않는 언어 반응으로 간주되어, 모든 것을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치환할 수 있다. 그는 동물 행동의 분석에 사용된 방식을 그대로 인간 행동에 적용하고자 했다. 어쩌면 그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의식과 주체성, 상징적인 행위 등이 배제된 동물의 그것과 별 다른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